

차크라삼바라의 몸과 말과 마음을 정화하는 기도문

- 귀의와 발심

불보, 법보, 승보께 항상 예경합니다.
삼승의 모든 이
밀교 수행자, 다끼니, 용감한 요기와 요기니
관정을 수여하는 다끼니와 대보살들
더욱이 스승께 항상 예경합니다.
모든 중생을 위해
제가 헤루까가 되어
그들이 헤루까의 위대한 경지에
머물게 하겠습니다. (3번)

- 금강살타 관상

나의 정수리에 ‘뺨’이 연화좌로 변하고,
그 위로 ‘아’가 달의 방석으로 변하고,
그 위로 ‘흙’은, 흙이 새겨진 백색의 오고금강저五鈷金剛杵로 변한다.
오고금강저에서 빛이 나와 자타를 비추고 다시 모아진 뒤
하나의 얼굴, 두 손을 가진, 백색의 금강살타로 변한다.
오른손에는 금강저, 왼손에는 요령을 들고
결가부좌를 한, 백색의 금강만모(바즈라 가우리)가 안겨 있다.
하나의 얼굴, 두 개의 손을 가지고, 곡도(굽은 짐)와 해골 잔을 들고 있다.
부불父佛과 모불母佛은 비단과 보석으로 몸을 치장했다.

두 본존의 정수리에는 ‘옴’, 목에는 ‘아’, 가슴에는 ‘흙’이 나타난다.

가슴의 ‘흙’에서 빛이 나와, 본존을 닮은 지혜존을 모셔온다.
자흠밤호! 둘이 아니게 된다.

또다시 가슴의 ‘흙’에서 빛이 나와
관정을 주는 여러 본존을 모셔와 다음과 같이 청한다.
“모든 여래께서 이들에게 관정을 전수하소서.”

관정을 수여하는 여러 신께서 지혜의 감로수가 담긴 보병을 머리에 갖다 대고
“옴 짜르와 따타가따 아비세까따 싸마야 쉬리에 흙”라며, 관정을 전수한다.

몸은 지혜의 감로수로 가득 차고
나머지 물은 정수리에서 고여 육계를 부동불로 장엄한다.

가슴에 있는 달 방석, 그 위에 ‘흙’을 중심으로 백자 진언이 회전한다.
“세존인 금강살타시여, 저와 모든 중생이 지은 악업과
저희가 서약을 지키지 않아 지은 악업을 정확해 주소서.”라고 간청하니,
가슴의 ‘흙’과 백자 진언에서 빛이 나와
모든 중생의 악업을 정확한다.
불보살들께서 좋아하시는 공양을 올린다.

불보살들이 친구의로 지은 모든 공덕이 빛이 되어 ‘흙’과 진언에 흡수되니
백색의 감로수가 부모父母불의 합일점을 통해 흘러나와
나의 정수리로 흘러 들어오고 지혜의 감로수로 온몸이 가득 찬다.
감로수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지은 모든 악업을 녹여 맑힌다.

옴 벤자 헤루까 짜마야 마누 빠라야
헤루까 떤노 빠띠타
디도 메 봐와
쭈또카요 메 봐와
쭈뽀카요 메 봐와
아누락또 메 봐와
짜르와 췌디 메 뿌라야짜
짜르와 까르마 쭈짜 메
찌땀 쉬리얌 꾸루 흙
하하 하하 호
바가완 벤자 헤루까

마메 문짜 헤루까 봐와

마하 싸마야 싸또

아 흠 팻 (21번)

금강살타 부모불이 나에게 흡수되고

나의 몸과 말과 생각, 금강살타의 친구의는 둘이 아닌 하나가 된다.

“제가 무지하고 어리석어 서약을 어기고 훼손했습니다.

보호자인 스승께서 구제하소서.

금강저를 지닌 본존이시자 대자대비의 본성이시며

중생의 의지처인 당신께 귀의합니다.”

금강살타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선남자여, 그대의 악업과 서약을 지키지 않아 지은 악업이 모두 정화되었다.”

금강살타가 내게 흡수되고 나의 몸과 말과 마음은 금강살타의 몸과 말과 마음과 하나가 된다.

- 마음 정화

쉬리 헤루까!

“혜”는 범무아로 만물의 근원이 되는 마음은 실재하지 않는다.

“루”는 인무아로 인아집에서 비롯되는 분별의 그물에서 벗어난다.

“까”는 진여의 대상과 대상을 아는 인식이 둘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쉬리”는 대상이 공한 것처럼 인식하는 비이원성의 지혜인 ‘에밤’을 뜻한다.

- 몸 정화

공성 본연에서 나는 찰나에 하나의 얼굴에, 두 손을 가진 청색 헤루까로 변한다.

오른손엔 금강저, 왼손엔 요령을 들고 오른쪽 다리로 서 있다.

하나의 얼굴에 두 개의 팔을 가진 적색의 금강불모(바즈라 바라히)가 오른손엔 곡도, 왼손엔 해골 잔을 들고 헤루까에게 안겨 있다.

쉬리 헤루꼬 함! (모든 중생을 돕겠다는 마음을 일으키며 3번 독송 후 자궁심을 일으킨다)

- 말 정화

옴 아아 이이 우우 리리(R)

리리(L) 에에 오오 암아

까카가가아

짜차자자나

따타다다나

따타다다나

빠파바바마

야라라와

싸카싸하카

흠흠 팻 (3번)

자신의 단전에서 오색 빛으로 된 이 진언들이 시계 방향으로 3번 돈다.

그리고 차크라삼바라의 권속들이 차례로(바깥 쪽은 백색, 그 안엔 적색, 제일 안쪽은 청색)

나의 오른쪽 콧구멍을 통해 나가 모든 장애를 물리친 뒤 왼쪽 콧구멍을 통해 들어와 단전에 있는 진언에 흡수된다.

옴 까라 까라, 꾸루 꾸루,

밴다 밴다, 프라싸야 프라싸야,

쿄바야 쿄바야, 흐롬 흐롬,

흐라 흐라, 펄펄,

팻팻, 다하 다하, 빠짜빠짜,

박샤 박샤 바싸 루디라

랜따 마라바 람비니,

그리하나 그리하나 샵따 빠따라 가따

부잠 감 싸르와 빠 따자야 따자야,

악다야 악다야, 흐림 흐림,

자눔 자눔, 카멈 카멈,

함함, 힘힘, 흠흠,

끼리 끼리, 씨리 씨리, 히리 히리, 디리 디리,

흠흠 팻.

옴 뵤자 와라히, 뵤로팡기 뵤로팡기,
하나 하나 뵤라남,
깁 끼니, 킵키니,
두나 두나, 뵤자 하쓰떼,
쇼카야 쇼카야, 뵤자 카팍카,
까빠라 다리니, 마하 비시따,
맘싸 싸니, 마누 산뜨라 뵤라 브리띠, 싸니 님나,
라씨라 마라 그라티따 다리니, 쑤바 니쑤바, 하나 하나 뵤라남,
싸르와 빠싸 바남, 마하 멘싸 쟈따니,
꼬로다 무르띠, 답쉬따 까라 리니,
마하 무드레, 쉬리 헤루까 데바쎄야,
그라 마하히시, 싸하쓰라 시리, 싸하쓰라 바하베,
싸따 싸하쓰라 나니 자리따, 떤자씨 자라 무케, 쑤가라 로짜니,
뵤자 샤리레, 뵤자 싸니,
미리따 쟈리따, 헤헤, 흠흠,
카카, 두루 두루, 무루 무루,
아데떼 마하 요기니, 빠티따 쑈떼,
뜨렘담 뜨렘담, 그람 그람,
헤헤, 하하, 비떼, 하싸 하싸 비리,
하하, 헤헤, 흠흠, 떤로까 비나 샤니,
싸하 쓰라 꼬띠 따타가따,
빠리 바레, 흠흠 팻, 쑤하 루베 카,
가자 루빠 아, 떤로까 우다레, 싸무뜨라 메카레,
그라싸 그라싸, 흠흠 팻, 비라 데떼, 흠흠, 하하,
마하 빠슈 모하니, 요기 슈와리 땀,
다끼니 싸르와 로까남 뵤다니,
싸디야 뵤라따야 까리니,
흠흠 팻, 부따 뜨라싸니, 마하 비라,
빠라마 쑈따, 요기 싸리 팻,
흠흠 팻, 쑈하

음 쉬리 뻘자, 헤헤 루루 감, ㅎㅎㅎ 팻, 다끼니 자라 삼바람 쏘하

음 흐리, 하하 ㅎㅎㅎ 팻.

음 뻘자 베로짜니예, ㅎㅎㅎ 팻 쏘하.

음 싸르와 붓다 다끼니예, 뻘자 와나니예 ㅎㅎㅎ 팻 쏘하.

음, 음 하, ㅎㅎㅎ 팻

음, 나마히, ㅎㅎㅎ 팻

음, 쏘하, ㅎㅎㅎ 팻

음, 보우 샤따 헤, ㅎㅎㅎ 팻

음, ㅎㅎㅎ 호, ㅎㅎㅎ 팻

음, 팻 함, ㅎㅎㅎ 팻

음, 음 밤, ㅎㅎㅎ 팻

음, 함 음, ㅎㅎㅎ 팻

음, 흐림 몸, ㅎㅎㅎ 팻

음, 흐림 흐림, ㅎㅎㅎ 팻

음, ㅎㅎㅎ, ㅎㅎㅎ 팻

음, 팻팻, ㅎㅎㅎ 팻

음, 존귀한 세존, 자재한 영웅께 절합니다. ㅎㅎㅎ 팻

음, 영겁의 불과 같은 빛을 비추며, ㅎㅎㅎ 팻

음, 여러 가닥의 머리카락으로 끈 무한의 보관을 쓰고, ㅎㅎㅎ 팻

음, 송곳니를 드러내고 무시무시한 얼굴로, ㅎㅎㅎ 팻

음, 빛나는 수천 개의 손을 가지고, ㅎㅎㅎ 팻

음, 도끼, 갈고리 밧줄, 창, 삼지창을 쥐고, ㅎㅎㅎ 팻

음, 호랑이 가죽으로 된 옷을 입고, ㅎㅎㅎ 팻

음, 회색 빛의 몸으로 모든 장애를 멸하는 분께 예경합니다. ㅎㅎㅎ 팻

음, 존귀한 세존모, 금강팍모께 절합니다. ㅎㅎㅎ 팻

음, 성녀들의 어머니를 능가할 자 삼계에 없고, ㅎㅎㅎ 팻

음, 원소의 두려움은 모두 금강저로 부수며, ㅎㅎㅎ 팻

음, 금강좌에 앉아 다른 이들이 하지 못한 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는 눈, 흠흠 팻
음, 분노존의 형상을 한 뽕모로 범천을 마르게 하며 흠흠 팻
음, 악마들을 두렵게 하고 말라버리게 하여 적으로부터 승리하고 흠흠 팻
음, 혼미와 경직과 우매함을 이겨내시고, 흠흠 팻
음, 욕망을 지배하는 수행자, 금강 팍모께 예경합니다. 흠흠 팻.

- 회향 기도

몸으로 삼계를 비추어 아끼는 중생들을 길들이고
천 개의 푸른 광명은 십만의 태양 빛과 같으니 중생들을 위한 연민심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하는 위대한 해루까시여, 중생들과 함께 춤을 추소서.
다끼니가 올바르고, 서약도 올바르고, 다끼니께서 하신 말씀도 올바르니
이와 같이 진실대로
다끼니들께서는 저희들을 굽어살피소서.
모든 중생을 위해
제가 해루까가 되어
모든 중생을 해루까의
최고의 경지로 안내하겠습니다.

도의 정상에 이르지 못하고 죽을지라도
존귀한 아버지와 어머니, 권속들이 경이로운 공양 구름과 함께
저를 맞아 주시어 다끼니의 정토로 안내해 주소서.
수 천만의 요가 수행자들이 나아간
차크라삼바라의 가르침과 수행력이 쇠락해질 때
널리 향상시키는 해탈의 다리가 되어
결코 물러서지 않고 오래오래 머물게 하소서.
이 이치를 수행해 한량없는 힘을 지니고 현상계
24처의 용감한 요기와 다끼니 권속들께서
한결 같이 늘 도와 주소서.